

“아파도 못 쉰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전무

지난 2월 경기도 유치원 교사 독감 근무 중 사망
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발표에도 ‘제주 0명’
제주교육청 “순회교사 도입 전까지 인력 풀 활용”

올해 2월 경기도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 수업을 지원 하는 순회교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대체인력)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됐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유치원 현장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제주를 비롯한 7곳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을 1명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유치원은 116곳(공립 101곳·사립 15곳)인데, 이들 유치원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고정 인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

머지 9개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은 190명으로, 이 역시도 모두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였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7일 “제주는 유치원 교사가 아프거나 연수를 가야 할 때 기댈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가 아파도 쉴 수 없는 학교’는 유치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 교육 현장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 현장에 대체교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인력 풀을 활용해 대체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설유치원 등에 대체인력을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 풀을 가동해 인력 지원

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인력 풀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모두 97명(기간제 92명·시간 강사 5명)이다. 다만 대부분이 기간제 근무를 희망해 인력 풀에 등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교사 공백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순회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 근거가 마련되면 2028년 3월 배치가 가능해진다. 그전까진 인력 풀을 늘리고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유치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서도 순회교사 배치가 늦어질 경우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8일 금요일 음 8월 8일 (조금)

기상 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 주	60%
80%	성 산	80%
70%	고 산	60%
7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2/28℃
모레	맑음 22/28℃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한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흐리고 가끔 비

제주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3℃, 낮 최고기온은 25-27℃로 예상된다. 당분간 풍랑·강풍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6:19	달뜨기 13:13
해질 18:37	달지기 22:46
물때 만조 01:31 16:53	간조 08:47 22:54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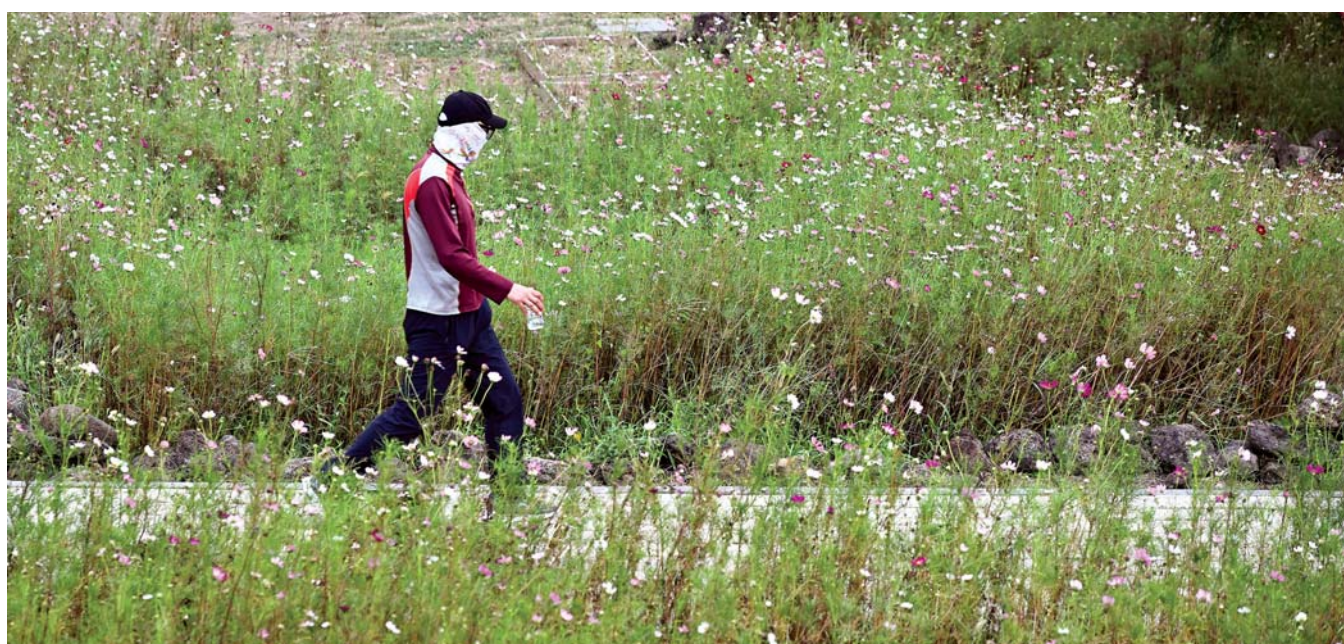
“학교급식실 폐암 배상”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제주에서도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폐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지자체(교육청)가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지난해 1월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다.

연대회의는 판결에 대해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묻은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코스모스 반겨주는 길 17일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유아숲체험원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추석 연휴 앞두고 상품의 감귤 출하 적발 도의 도매시장 합동 점검서 규격 위반 확인

추석 연휴와 본격적인 극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벌써부터 상품의 감귤이 도의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제주도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구리농산물도매시장, 대구 북부농산물도

매시장에서 제주산 감귤 유통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추석을 앞두고 제주산 감귤 출하와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상품의감귤 출하 여부 ▷품질검사와 상품 규격 준수 여부 ▷도매시장 내 유통실태를 중점적으로 확

인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은 도내 업체가 유통한 1135kg 규모의 극조생 감귤로 상품 규격에 맞지 않는 소과(작은 감귤)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 초·중·고 급식 한 끼 식품비 ‘전국 Top5’ 초등 4220원 5위·중 4940원 4위·고교 5250원 3위

제주지역 초·중·고 급식 한 끼 식품비가 17개 시·도중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초등학교 급식 한 끼 식품비는 무상급식 예산 3570원에 친환경 등 추가 지원 식재료비 650원을 더해 42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4553원, 충북 4322원, 경북 4320원, 세종 4295원에 이어 5위권 수준이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 식재료비(친환경·지역산·non-GMO·현물 등)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3620원에 불과해 서울과는 933원, 제주와는 600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중학교 식품비는 제주가 4940원

으로 경기 5047원, 충북 5033원, 경북 4950원에 이어 4위, 고등학교 식품비는 제주가 5250원으로 경기 5417원, 충북 5371원에 이어 3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급식 식품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중학교 4468원, 고등학교 4570원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급식 식품비는 초등학교 4000원, 중학교 4660원, 고등학교 4980원이다. 위영석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엌사랑으로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SAMSUNG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